

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자비를 청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자의 낮추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증언하도록 합시다.

♣ 2026년 가톨릭청년성서모임 - 유럽 13차 창세기 연수

- 일시 : 8월 28일(금)~8월 31일(월)
- 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 참가자 : 김영수 빈첸시오, 안소현 아녜스, 안동진 안드레아, 장보인 비비아나
- 유럽 각국의 한인성당 청년들이 모여 성경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연수입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를 준비해주신 사목회와 성모회,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73.00€ • 교무금 550.00€

전례 성가

입당 : 78 (영광의 왕께 찬미를)

봉헌 : 340 (봉헌)

성체 : 180 (주님의 작은 그릇)

182 (신묘하온 이 영적)

파견 : 77 (주 천주의 권능과)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8월 16일

(녹) 연중 제20주일

본기도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6,1.6-7)

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6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7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Ⅲ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11,13-15.29-32)

형제 여러분, 13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4 그것은 내가 내 살붙이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15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9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31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32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5,21-28)

그때에 예수님께서 21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22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23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4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25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26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으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모인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심어 주시어, 그들이 인간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온전히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3.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굶주리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사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온 마음으로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지역 사회에서 일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며,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인자하신 주님,

성체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